

A Method of Readers' Consulting for the Behavior Problem Child in Reading

讀書行動問題兒에 대한 讀書相談 要領에 관한 小考

孫 正 彪
慶北大圖書館學科 專任講師

I. 序 言

現代社會는 「普通讀書時代」라 불리워지고 있다. 이는 옛날처럼 特定 小數人을 위하고, 17~8세기까지 存在해 왔던 知識이나 思索을 目的으로 하는 「自己志向型」의 讀書가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性格이 萬人讀書, 萬事讀書, 思索讀書, 娛樂讀書, 對等讀書의 方向으로 分化되고 「他人志向型」의 讀書로 되어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讀書의 性格이 人間生活과 密着되어 分化現象을 가져올에 따라 讀書의 類型도 역시 分化現象을 일으키고 있다. 즉 修養中心, 知識獲得中心만이 전부였던 過去의 讀書形態는 基礎學力의 增進을 위한 讀書, 讀書技術開發을 위한 讀書, 各種 生活情報를 얻기 위한 讀書, 여가를 즐기 위한 讀書등의 形態로 多元化 내지 多樣化의 方向으로 分化되고 있다.

A. J. Harris는 이러한 觀點에서 讀書의 類型을 다음의 3가지로 大別하고 있다¹⁾.

① 發達의 讀書——讀書學習 그 自體가 主目的으로 讀書技術向上 위주의 讀書

② 機能的 讀書——높고 낮은 水準의 各種 知識을 얻거나 事實에 대한 情報를 얻는 것을 主目的으로 學習을 위한 讀書

③ 娛樂의 讀書——주로 여가를 선용하여 自身을 즐기기 위한 것을 主目的으로 展開되는 讀書

로 나누고 讀書教育의 目標도 이러한 形態로 나누어 지도록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같이 現代社會의 讀書의 類型과 活動領域은 教養과 娛樂과 같은 單一的인 讀書만이 아니라, 機能的인 讀書開發을 더 중요시 하는 바와같이 複合的이고 目的的인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와같은 細分化된 領域別에 따라 그 能力을 開發시켜 어려서부터 올바른 讀書習慣을 길러주도록 科學的인 指導方法이 展開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高潮化되어 왔다. 이것은 점점 微分化 되어가고 있는 現代社會의 급격한 變化構造에 適應하여 자신에게 當

面하는 여러가지의 生活課題들을 讀書를 통하여 스스로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기 위한다 있다 하겠다.

그러나 개개인의 讀書生活을 展開해 나가는 過程 가운데는 個個人的 能力을 넘어서 問題와 장애가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여기에 대하여 本人의 欲求不滿을 解消시켜 줄 수 있는 助言을 통하여 이것을 解決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讀書相談의 意義와 價値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다. 이뿐 아니라 圖書館의 基本的인 機能의 하나로 되어 있음도 곧 그러한 問題解決의 場으로써 圖書館이 지니고 있는 社會的 使命이 크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實情을 보면 이의 重要性이 認識되고 있는만큼 實踐化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니 거의 모두가 이의 重要性을 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혹 讀書相談員을 配置하고 있는 圖書館이 있다 하더라도 資料所材에 대한 問答이나 資料의 選擇 등 극히 소극적이고 形式的인 相談에 응할 뿐, 보다 積極的이고 폭 넓은 그야말로 讀書에 대한 專門家다운 자세에서 相談에 임하고 있지는 못하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論稿의 意圖는 그러한 現狀을 脫皮하고 보다 積極的이고 한 걸음 나아간 相談의 開發이 필요하다는 見地에서 愚見 몇마디를 제시해 보기로 한 것이다.

II. 讀書行動問題兒 類型과 一般的 特性

讀書行動問題兒의 類型은 그들이 나타내는 行動의 差에 따라 細分해 보면 讀書에 興味와 關心을 갖지 않는 讀書無關心兒와 讀書에 關心을 보여주지만 讀書의 方法이나 態度가 正常兒와는 다른 讀書態度異常兒로 나누어지며, 後者は 다시 그 行動의 特徵에 따라 讀書 偏向兒, 讀書不安定兒, 讀書早熟兒, 讀書過多兒, 讀書分裂兒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1) A. J. Harris. How to Increase Reading Ability. 2nd ed. (N. Y. : Longmans, Green, 1955), pp. 62~64.

2) 今村秀夫編, 學校圖書館의 讀書指導(東京: 岩崎書店, 1971), pp. 42~43.

그러면 이들 個個의 意義와 特性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³⁾.

① 讀書無關心兒

이는 前述한 바처럼 讀書에 興味나 關心을 나타내지 않는 아동을 말한다.

② 讀書偏向兒

讀書力은 있지만 한쪽에 치우쳐서 讀書하는 兒童을 말한다. 兒童들은 특히 安易한 것만을 찾는 傾向이 많으며, 興味本位의 娛樂圖書에 熱中하는 傾向이 大部分이다. 이밖에도 科學者나 文學書의 좁은 主題에 沒頭하고 있는 兒童도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들의 生活全面的 調和를 깨뜨리지 않는 限度 內에서 監視가 必要하다 하겠다. 그러나 간혹 年齡이나 기타 條件으로 一時的인 興味中心의 偏向現象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長期間 동안 細心한 觀察이 必要하다 하겠다.

③ 讀書不安定兒

讀書를 할 때 體系있게 하지 못하고 손에 닥치는대로 이것 저것 읽는 兒童으로 浮動的인 讀書偏向兒라 불리워지기도 한다⁴⁾. 이 類型의 兒童은 讀書能力에 缺陷이 있어서 圖書에 대한 抵抗意識을 갖고 中途에 스스로 拋棄해 버릴려는 習慣을 나타내는 때가 적지 않다. 또한 心理的, 生理的으로 持續力이 약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年齡에 따른 興味發達過程을 中心으로 하여 集約的으로 動機構成을 할 必要가 있으며, 生理的 缺陷의 경우는 醫學的 治療를 同伴하여야 한다.

이 類型의 兒童에 대한 特性을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⁵⁾,

① 知能과 讀書力이 낮기 때문에 讀書를 할 수가 없다.

② 매우 性格이 가변기 때문에 安定을 못가진다.

③ 情緒的 不安定感을 가지고 있다.

④ 身體的인 缺陷으로 인해서 氣力이 없다.

⑤ 環境으로 하여금 安定시키지 못한다.

등을 들 수 있다.

④ 讀書早熟兒

讀書力이 이상하게 빨리 發達하여 年齡에 適合하지 않는 높은 程度의 것을 읽는 兒童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類型이 있다⁶⁾. 첫째 類型은 읽은 圖書의 內容을 正確하게 理解하는 兒童이다. 이들의 特徵은 知能도 높고 讀書力도 높아 精神的 生活이 高度로 進歩하여 現實生活에 不當適應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한쪽에 치우치는 讀書偏向의 特性을 결하는 例가 많다. 過去에는 이러한 兒童들을 보통 秀才兒라하여 尊重을 해왔지만 요즘에는 대체로 人格的 適應이 不健全한 것으로 指摘되어 異常兒로 取扱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現實에 대한 不當適應이나 現實을 逃避하려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現實生活로의 興味를 開發하여 讀書와 生活과의 統一을 指導해 줄 必要가 있다. 둘째 類型은 읽은 도서의 內容을 完全히 理解하지 못하는 兒童이다. 이러한 類型의 兒童들은 氣分이 자주 엇갈리는 狀態가 많아 自然히 現實의 生活에 幻滅을 느껴 우울해 하는 傾向이 있으며, 또한 그 不健全한 理解로 現實을 改造해보려고 한다든지, 年長者의 이면 生活에 마음이 끌려 自身도 그것을 實行해보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兒童들에게는 제일 程度가 낮은 理解하기 쉬운 讀書物을 提供하여 意圖的인 指導를 하면 治療될 可能性이 많다.

이 類型의 兒童에 대한 特性을 몇가지를 살펴보면,⁷⁾

① 一般的으로 能力이 높다.

② 性的으로 早熟하다.

③ 自己보다 年長者에 所屬하려 한다.

④ 親友間에는 孤獨하고 成人의 社會로 逃避하려고 한다.

⑤ 自己忠實의 要求가 강하다.

⑥ 親友間에 색다른 話題를 提供하여 中心人物이 되려고 한다.

⑦ 이미 自己는 어린이가 아니고 成人이라는 느낌을 보증하려고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⑤ 讀書過多兒

讀書生活이 生活的 調和를 깨뜨릴 程度로 많이 읽는 兒童을 말한다. 이는 讀書偏向, 讀書早熟, 讀書分裂등과 並存하는 경우가 많으며 亂讀의 경향도 隨伴하기도 한다. 이러한 類型의 兒童들은 生活的 興味가 讀書로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生活의 다른 面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혹은 讀書 이외의 다른 生活을 逃避하려는 傾向이 많아 危險하다.

이 類型의 兒童들들의 特性을 살펴보면,⁸⁾

① 知識이 높은 편이다.

② 社會性이 不足하고 協力的인 參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個人行動으로 逃避한다.

③ 他人으로부터 받는 生活課題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怠慢하려고 한다.

3) 阪本一郎, 讀書の心理と指導 (東京: 牧書店, 1960), pp. 148~149.

4) 阪本一郎, 讀書指導 改訂增補(東京: 牧書店, 1957), p. 443.

5) 阪本一郎, 讀書の心理(東京: 牧書店, 1954)를 引用한 金京一, 學習能率 向上을 위한 讀書指導의 技術(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8), p. 124에서 再引用

6) 阪本一郎, 讀書指導, pp. 443~445.

7) 金京一, 前掲書, 同面.

8) 上掲書, 同面.

㉔ 몸이 虛弱하므로 앉아 하는 일을 좋아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⑥ 讀書分裂兒

讀書에 異常하게 興味를 가지고 끝에는 自己를 잊고 自身이 책중의 人物이 되어 本性을 잊는 兒童을 말한다. 이는 讀書偏向이나 讀書早熟이 높으면 이러한 類型에 빠지기 쉽다. 이들은 대체로 現實生活에 不當適應現象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自身의 要求가 充足되지 않기 때문에 讀書의 世界로 逃避하여 그곳에서 白晝夢을 좇아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思春期의 多感한 年齡期에 그러한 傾向이 눈에 많이 띈다. 즉 이 年齡期의 兒童들의 傾向을 보면 대체로 低俗한 內容物이나 俗惡한 繪畫類, 혹은 末稍神經을 刺戟시키는 선정적(煽情的) 讀書物 등이 愛讀되는 경우가 많아 精神健康을 해칠 우려성이 많다 하겠다. 이들의 경우는 주로 臨床心理學的인 原理를 適用하여 治療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이 類型의 兒童들의 特性을 살펴보면,

- ① 知能, 기아가 높은 편이거나 혹은 早熟하다.
- ② 多讀한다.
- ③ 社會性이 적으므로 孤立되어 있다.
- ④ 自己本位로서 고집이 세다.
- ⑤ 現實의 生活環境에서 이탈하려고 한다.
- ⑥ 感想으로서 現實을 美化시키려고 한다.
- ⑦ 放任되어 現實에 挑戰하는 氣力이 없다.

Ⅲ. 讀書行動問題兒의 讀書相談要領

1. 讀書相談의 意義

個個人이 讀書活動을 展開해 나가는 過程 가운데는 個人의 能力을 넘어선 問題와 障害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여기에 대하여 本人의 欲求不滿을 解消시켜 줄 수 있는 助言을 통하여 이것을 解決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갈 必要가 있다. 讀書相談(Readers' Consulting)이란 바로 讀書活動중에 생겨나는 그와같은 個別的인 問題나 障害를 解決할 수 있도록 助言的 指導를 하는 個別指導方法의 한 形態로, 개별지도중 面接이나 書信 등에 의하여 兒童 個個人의 讀書要求나 問題에 대한 相談에 응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讀書相談은 近年에 와서 그 必要性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그것은 讀書가 아동의 精神發達에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認識되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讀書指導가 兒童의 生活指導로서도 커다란 意味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하겠다. 讀書相談의 必要性이 高潮化되어 가는 原因 몇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¹¹⁾

① 良書·適書의 選擇問題

兒童圖書의 出版關係를 보면 文學書가 大半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外國圖書의 번역서가 相當量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作品에 대한 適當한 評價가 必要視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評價된 作品이라 하더라도 出版社별로 類似한 國內外文學作品등이 出版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어떠한 種類의 것을 選擇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는 各各 어떠한 特色을 지니고 있는가 등의 把握이 필요시 되고 있다.

② 年齡과 內容上의 問題

요즈음에 出版된 古典의인 文學作品을 보면 同一한 內容이라 하더라도 연령의 程度에 따라 低學年用 그림 책류로 부터 高學年用이나 심지어 高·大學生用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類型으로 翻案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과 作品內容에 따른 適當한 評價가 필요시 되고 있다.

③ 매스컴의 問題

텔레비·영화·라디오등의 매스컴은 만화와 더불어 讀書를 저해하는 要因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특히 TV는 成長期의 兒童들의 讀書하는 時間을 너무 침해함으로써 그들의 讀書力이나 思考力, 創造力등을 減弱시키는 가장 큰 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만화를 主體로 한 오락잡지의 問題도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매스컴의 影響으로 인하여 父母는 兒童의 心身發達에 큰 不安을 느끼고 있어 健全한 讀書로의 인도가 필요시 되고 있다.

④ 讀書와 學力의 問題

讀書力의 지체가 學業成績에 切명적인 影響을 미친다는 點은 옛부터 指摘되고 있는 事實이다. H. L. Caswell 에 의하면 學業不振의 20% 程度는 讀書力 問題에 기인된다 하고 있다.¹²⁾ 또 W.P. Percival 이나¹³⁾ D.M. Lee의 研究結果¹⁴⁾도 學年이 낮아질수록 學業成績의 不振은 讀書力의 不振이 原因이 되고 있다. 또 高等學生을 대상으로 한 李榮碩·李恩珍씨의 共同研究結果에서도 讀書力은 國語의 學業成績에 40%, 英語에 29%, 數學에 22%를 豫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¹⁵⁾ 이뿐 아니라 讀書力의 지체가 兒童의 性行의 異常

9) 上揭書, 同面.

10) 今番秀夫, 前揭書, p. 108.

11) 阪本一郎 等編, 現代讀書指導事典(東京:第一法規, 1968), pp. 118~119.

12) H.L. Caswell, "Non-promo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Journal, V. 33 (1933), pp. 644~647.

13) A.I. Gates, The Improvement of Reading(N.Y.: Macmillan, 1947) p. 23.

14) 上揭書, 同面.

15) 李榮碩, 李恩珍, "讀書力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4권 5호(1975.5), p. 40.

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調査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讀書興味の 異常은 兒童의 精神의 健康의 缺陷과 밀접한 相互關係에 놓여 있다 하겠다.

非行少年의 讀書傾向의 調査에서도 바로 이점을 強調하고 있다. A.J. Harris의 靑少年非行集團에 관한 觀察報告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讀書力이 精神發達에 未達하고 있다 하고, 學校生活에 있어서 學業成就나 性格發達을 저해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사실 저속한 內容의 모험, 협객의 엽기적인 內容物, 愛慾을 主題로 한 內容物에 너무 지나치게 興味를 빼앗기게 될때 그것이 점점 非行의 動因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것이다. 물론 속악한 매스·코뮤니케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現代社會 속에서 비단 讀書만이 그에 대한 責任을 짊어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讀書의 無罪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讀書과 學力, 讀書과 非行에 대한 不安도 또한 父母의 不安의 原因이 되고 있으므로 讀書問題兒의 조속한 發見과 치료가 필요시 되고 있다.

이상의 몇가지 原因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특히 오늘 날에 와서는 그러한 問題點들을 解決하고 보다 健康하고 安定된 心身의 發達을 도모하기 위하여 讀書相談의 必要性이 高潮化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圖書館에서 지금까지 傳統의 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適書選擇 感賞 文 作成法, 資料利用法, 질의에 대한 응답등과 같은 단순하고 소극적인 助言의 指導만이 아니라 讀書問題兒에 대한 臨床心理學的인 相談方法도 절실히 要望되고 있다 하겠다.

2. 讀書相談의 方法

讀書相談은 讀書에 관한 專門의인 立場으로부터 兒童의 讀書生活에 부딪치는 여러가지의 問題點들에 대하여 助言이나 情報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相談者는 專攻分野에 대한 一般의인 知識을 충분히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兒童의 生活指導에 責任을 지는 소위 讀書資料를 媒介로 한 카운셀링의 역할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兩親이나 教師를 위하여 臨床心理學的인 專門의 立場에서도 相談에 응할 수 있도록 充分한 知識을 갖추고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讀書相談에 임하고자 할때는 먼저 다음과 같은 事項을 유의하여 準備해둘 필요가 있다. 즉 大量으로 出版되고 있는 兒童圖書中 良書를 選擇하여 이를 다시 연령에 適合한 圖書別로 整理해 둘 필요가 있다. 그후 이러한 圖書들을 다시 友情, 協力, 愛情 등 作品內容別로 整理하여 두고 質問에 따라 具體的으로 그에 適合한 適書를 항상 제시할 수 있도록 事前의 準備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事前準備에는 비단 文學作品만이

아니라 有目的的인 讀書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논픽션이나 퀴즈, 敎科課程과의 關聯圖書도 미리 함께 準備하여 整理해 두고 相談에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相談者의 類型가운데 특히 讀書問題兒에 대한 具體的인 相談에 접할 경우에는 上記와 같은 理論이나 情報만을 가지고 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겠다. 이에는 法律相談者가 來訪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것이 어느 法律 條項조에 의하여 處理되어야 할것인가를 判斷하여 助言해 주듯이 被相談者의 問題 要因을 正確히 파악하여 助言해 주어야 한다. 즉 診斷을 위한 豫備調査가 반드시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相談時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相談者가 問題兒童과 함께 來訪하였을 때는 兒童을 내보낸 후에 相談者와 面談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만일 兒童이 있는 자리에서 相談者가 그에 대한 問題性을 제시한다면지 批評을 하게 되면 治療시 그 兒童의 信賴感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¹⁷⁾

相談過程中 診斷時에 基本的으로 調査되어야 될 豫備調査內容을 들면 다음과 같다.¹⁸⁾

- ① 兒童의 生活環境——이는 交友關係教師의 感化, 父母兄弟로부터의 영향, 가정주변의 환경등의 調査로부터 여러가지 資料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兒童의 性格, 對內外的인 興味度와 趣味 및 外向의 活動의 適應度
- ③ 兒童의 讀書歷——이는 讀書를 中心으로 한 兒童의 成長過程을 調査하여야 한다.
- ④ 兒童의 生育歷
- ⑤ 兒童의 讀書能力과 知能

등의 基本的인 調査가 必要하다. 그후 問題有無를 辨別하여 問題가 있을 경우는 그 症狀를 精確히 把握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症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規準에 따라 調査하여 綜合的인 內容把握圖를 作成하는 것이 좋다.¹⁹⁾

- ① 知能發達에 問題는 없는가
- ② 신체장애로 인한 콤플렉스는 없는가
- ③ 讀書技術이 미숙한 점은 없는가
- ④ 讀書環境에 어떤 缺陷은 없는가
- ⑤ 讀書經驗에 問題는 없는가
- ⑥ 性格的, 情緒的인 면에 問題는 없는가

16) Harris, 前掲書, pp. 1~11.

17) R.Strang, C.M. McCullough, A.E. Traxler, Problems in the Improvement of Reading(N.Y.: McGraw-Hill, 1955), p.387.

18) 阪本一郎 等編, 現代讀書事典, p. 120; 今村秀夫, 前掲書, p. 113.

19) 阪本一郎 等編, 現代讀書事典, p. 120.

등 이러한 規準에 비추어 症狀를 綜合的으로 把握한 후 發見된 問題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음에 診斷으로부터 處理에 이르기까지의 유의점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① 診 斷

무엇보다도 먼저 兒童이 지니고 있는 問題의 實體를 정확히 發見하여야 한다. 이러한 診斷의 順序는 보통 教科指導에서 취하고 있는 指導→診斷→再指導의 原理와는 달리 診斷→指導→再診斷의 순으로 처리해 나간다. 그리하여 再診斷의 결과 問題가 解消되게 되면 指導는 그치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治療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問題가 發生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一定期間 계속해서 세심한 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處 理

讀書行動問題兒에 대한 處理는 그렇게 된 原因의 배제와 症狀개선에 必要한 積極的인 治療의 두가지 면으로 나누어 計劃되어야 한다²⁰⁾. 이러한 處理過程에는 무엇보다도 兒童 스스로가 그 指導에 積極的으로 協力할 수 있도록 動機를 造成시켜 주는 일이 必要하다. 그러나 대체로 兒童은 스스로의 弱點에 접촉하기를 本能的으로 꺼려하는 傾向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問題의 原因을 除去하고자 할 때는 兒童 자신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이들이 自發的인 興味를 誘發할 수 있도록 教師나 父母도 함께 參與하는 意圖的인 指導가 必要한 것이다. 예를 들면 父母의 協力에 의하여 親子讀書를 즐기도록 한다든지 教師의 協力에 의하여 어린이 회등에서 表現活動에 參與하도록 하는 方法 등의 意圖的인 指導方法을 들 수 있다. 이는 治療를 個別的인 것으로부터 集團으로 옮겨 集團中에서의 활발한 活動을 통하여 自然的인 治療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方法이다. 이밖에도 讀書材料를 제공할 때는 指導者의 一方的인 選擇과 제공보다 指導者의 判斷과 兒童의 要求가 合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讀書問題兒의 能力과 興味에 따르지 않으면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協力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하겠다.

독서 상담 기록표			
상담자	성명	(년 반 번)	
상담내용			
회답내용			
소견			
일자	접수년월일	회답년월일	
비고			

③ 記 錄

이러한 讀書相談의 內容이나 回答는 記錄化하여 分類整理해 두는 것이 좋다²¹⁾. 이는 事例研究의 所在들도 훌륭한 價値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類型化하여 保管해두면 금후의 相談에도 좋은 參考資料로 活用할 수 있다. 讀書記錄票 樣式을 들면 위와 같다.

3. 讀書相談事例

① 事例 1: 「讀書를 기피하는 兒童」의 例.

△ 相談內容

「國民學校 1學年에 다니는 의동말인데 무엇인가 새롭고 좋은 책은 없을런지요, 世界名作이야기 등은 거의 읽어서 무엇을 읽히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近來에 와서는 이야기책이 「읽기 싫다」는 表情을 짓는가 하면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을 권하면 그런 마음을 없애고서 나아질런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診斷內容

이 아이의 母親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診斷을 위한 豫備調査를 해본 결과, 이 아이가 읽기를 도피하는 原因은 다음의 두가지 점에 그 影響이 있었다. 첫째는 아이의 母親은 자식의 讀書가 繼續해서 向上되기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의동말이라는 점에서 남의 집 아이들보다 더 많은 神經을 써왔지만 兒童의 生活에 대하여는 盲目的인 關心을 들어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이가 집 근처의 아이들과는 거의 놀지않고 집에만 붙어있는 生活을 하고 있다는 점을 母親은 意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治療方法

國民學校 入學 이후 2~3年間도 入學前의 兒童의 生活처럼 놀기를 中心으로 한 生活을 하는 것이 健康上으로 보아 좋은 것이다. 兒童을 너무 어른들의 世界에 가두어 놓는 生活은 創造的 意慾을 缺하게 하는 結果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이 兒童의 境遇 그러한 兒童에게 알맞은 世界가 開鎖되어 있기 때문에 讀書를 逃避하려는 傾向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最近에 들어서 「재미가 없다」는 말로 表現함으로써 讀書에 등을 돌리기 始作하고 있다. 이 兒童이 表現하고 있는 말의 이면의 要求는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놀고싶다」는 말이 담겨져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아동은 遊戲의 世界로 開放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盲目的으로 開放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兒童의 경우는 그런대로 讀書力의 旺盛한 兒童이기 때문에 그 特質을 살려가면서 生活에

20) 上揭書, 同面.

21) 今村秀夫, 前揭書, p. 114.

適應하도록 하는 것이 適合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敎師와 相談하여 어린이회나 學級 등에서 그림유희, 劇놀이 등의 方法으로 이미 지니고 있는 自己의 讀書力을 積極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讀書를 表現生活과 결부시켜 줌으로써 생생한 讀書生活을 즐기도록 하여 잃어져 가는 讀書興味를 되찾아주고자 하는 생각이라 하겠다.

② 事例 2 : 「他人이 읽어주는 것은 즐겁게 들지만 自發的으로 읽지 않는 兒童」의 例.

△ 相談內容

「國民學校 2學年生인 사내아이로 의동아들입니다. 兩親 공히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은 情熱을 쏟고 있습니다. 成長도 比較的의 빠르며 2세경부터는 그림책 등도 여러가지 사주어 즐라래면 자주 읽어주곤 하였습니다. 性格도 活潑하고 어렸을 때도 낮가림을 하지 않는 活潑한 아이입니다. 幼稚園부터 1學年 始作하기 경까지는 더듬거리면서 읽는 狀態였습니다. 그런데 어릴때 부터 좋은 그림책 등을 읽어서 들려주는 것이 좋다고들 하기에 幼兒時節과 같이 자주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2學年이 되었으면서도 변함없이 읽어달라고 父母에게 졸라랍니다. 「스스로 읽도록 하라」고 拒絕하면 끝내 읽지 않고 뛰어나가 놀고 맙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면 좋을런지요」

△ 診斷內容

母親과 相談 結果 이 兒童의 경우를 살펴보면 元氣도 旺盛하고 讀書에 대한 興味도 있고 또한 지금까지 父母가 읽어주었던 그림책 등의 內容도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家庭生活의 모습에 대하여 問議해 보았을 때 그 原因은 바로 의동아들이라는 점에 保護의 손이 많다는데서 오는 現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兩親과 거기에 祖母가 있어서 여러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함으로써 依賴心이 강해져가게 된 것이다. 讀書에 대하여도 繼續해서 누군가가 읽어주기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努力해서 읽을 必要가 없게 된 것이다. 一種의 保護過剩의 原因에서 起因한 것이라 하겠다.

△ 治療方法

幼兒時節에는 文字의 抵抗이 강하여 讀書하기가 괴롭기 때문에 물론 읽어서 들려주는 것이 좋지만 이 어린이처럼 스스로 읽어야 될 나이가 됐으면서도 읽지 않는 것은 問題가 된다 하겠다. 이러한 兒童들은 먼저 日常生活의 改革이 必要하다. 單純히 讀書에만 局限하지 않고 모든 生活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自立精神을 길러줄 必要가 있다.

讀書의 面에서는 재미있고 穩和한 內容을 提供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림책이라든가 그것에 가까운 것부터가 좋다. 그래서 매일 잠자기 전에 짧은 時間을 배정

하여 스스로 繼續해서 읽어나가도록 約束을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라 하겠다. 그린뒤 한편의 책을 스스로의 힘으로 全部 읽었을 때에는 稱讚을 해주어 그 기쁨을 다시 吟味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 이외의 方法을 더 들여보면, 兒童이 읽어나가는 途中에 父母가 交代하여 읽어서 들려준다든지, 이야기의 재미있는 部分의 클라이막스까지만 읽어주어 兒童의 興味를 振作시킨 다음에 그 뒤부터는 兒童 스스로 읽어보도록 하는 方法도 좋다. 또한 책을 사는 方法이나 주는 方法 등도 父母가 一方的으로 사서 주는 것보다는 兒童과 함께 나가서 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그 동안 父母가 直接 손을 대었던 것을 漸進的으로 손을 떼고 스스로의 努力에 의하여 成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③ 事例 3 : 「텔레비에만 몰두한 채 讀書하지 않는 兒童」의 例

△ 相談內容

「國民學校 4學年 사내아이로 次男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4學年이라면 自主的인 생각을 갖기 始作하고, 外部世界로 向하는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區別하게 되고 讀書力도 顯著하게 發達한다고 들었습니다. 讀書習慣을 길러주어야겠다 생각하여 서두르지만 讀書에는 전혀 關心이 없고 텔레비에만 熱中합니다. 어떠한 方法으로 讀書에 대한 興味를 갖도록 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 診斷內容

母親으로부터 兒童의 生活狀況을 들어본 結果, 어린이는 대단히 活潑하고 오늘도 野球에 熱中하고 있다고 한다.

次男은 社交性이 강하고 친구들 사이도 좋고 學校에서 歸家하면 근처 친구들이 「야구하러 가자」고 誘引하러 온다고 한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놀고 와서는 食後에는 텔레비를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든다고 한다.

이와 같은 母親의 말을 들어보니 이 아이는 順調로운 發育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이 시기의 아동들은 뛰어 놀기를 무척 좋아 하지만 家庭生活에서 讀書를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時間을 너무 갖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 하겠다.

母親과의 相談 結果 長男이 進學시기가 迫頭해 왔기 때문에 次男만은 일찍 자도록 하는 것이 좋겠기에 애가 피곤해서 돌아오면 밥먹고 자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을 알았다.

△ 治療方法

이 兒童의 경우는 年齡에 相應하여 하루의 生活이 忠實해질 수 있도록 讀書環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텔레비에 내내 매달리는 것도 一週間中 兒童이 視聽하는 프로그램을 選擇하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하면 좋다. 이때 텔레비 프로그램을 選擇에 대하여는 너무 간섭해서는 안되며, 그것도 맛있게 食事할 때라든지 무엇인가 熱心히 하는 途中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

또한 텔레비 프로그램을 볼때 예를 들어 “西部少年 차돌이”나 “다람쥐 3兄弟”를 볼때 문제를 찾아주어 兒童의 批判도 듣는 것이 좋다.

이처럼 텔레비를 活用하여 兒童이 自然·科學·推理

冒險 등 어떠한 것에 강한 興味를 보여주고 있으나를 調査하고 圖書를 勸奨할 때는 먼저 그것부터 提供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同時에 讀書時間도 아동으로 하여금 定하도록 하여 自意의인 方向으로 漸進的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상 몇가지의 예를 들어 보았다. 아무튼 讀書相談을 할때는 兒童의 心理的인 發達, 즉 成長過程 및 興味發達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面談後에 처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讀者와 書評」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한 讀後感覺은 절 그 책의 間紙에다 꼭 쓰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讀書態度는 아주 훌륭하다. 독자들이 讀後感을 쓰는 習慣을 기르게 되면 大文章家로서의 素志를 닦는 길이 될 뿐 아니라 남들보다 더 그 著作內容을 파악할 수 있고 장차 일류 書評家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독후감이 곧 하나의 書評인 것이다.

그런데 흔히들 「書評」하면 斯界의 權威者나 學者들만이 쓰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著作에 대해 서평을 한다는 그 자체가 著者에게 실례되는 일이며 의람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書評을 忌避視하는 경향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書評은 著作物이란 무대에 있어서의 독자의 內面의 獨白이므로 저작물이란 舞臺가 있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 독백이 있음으로써 著作이란 무대도 그 생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저작물을 평가하는 이상 거기에는 評價하는 사람의 主觀이라든가 지식의 수준, 학문적 배경, 취미, 경현, 情感 등의 차이에 따라서 동일한 책에 대한 書評內容이 評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독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精神的으로 그 著作의 內容과 합치하여 진정으로 독서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서평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높은 평을 받은 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원성을 가지고서 後世에 傳統이 되며 인류의 복지나 문화의 진전에 기여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이 서평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독자가 쓴 서평이 그 당시는 자신의 뛰어난 觀察眼에 스스로 놀라울 때도 있지만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읽어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리 만큼 그 저자에게 죄스러워질 때가 있다.

그러나 書評은 평자 자신의 投影이라고 생각할 때 서평 그 자체는 그 자신의 하나의 精神的 著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書評이라야만 훌륭한 서평이고 가치 있는 서평일까?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哲學의 貧困」은 부르봉의 「貧困의 哲學」에 대한 批評인데 그 내용은 原著보다 훌륭한 저작으로써 사람들은 그것을 서평이라고 하지 않고 독립된 저작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서머셋·모옴의 「文學案內」는 개개의 문학작품에 대한 서평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것 자신 훌륭한 저작인 것이다. 마르크스나 모옴과 같은 명인의 서평을 들은 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우리들 주변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書評인지 新刊紹介인지 出版社의 선전광고인지 모르리만큼 저작의 무게와는 다르게 독자의 비판을 흐리게 하는 서평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이는 저자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명랑한 일은 못된다.

서평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評者의 內面의 吐露이므로 거기에는 평자 자신을 비평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 대한 평을 한다는 것은 평자 자신에 대한 비평도 되어 그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두려움게 한다. 예를 들면 저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서평을 썼을 경우, 아무리 훌륭한 서평일지라도 저자가 진심으로 충고로서 그 서평을 받아들일 것인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저작에 대해 과장이 되기 쉽고 적어도 서평의 필을 들었을 경우 평자의 기분이 무거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앙드레·지드는 말하기를 著作은 「著者と 神과의 合作이다」라고 했지만 오늘의 저작들은 저자와 독자와의 野合이라는 평들이 있다. 저작 그 자체도 시대에 따라 그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朴尙均〉